

2007년 상반기 중국경제 평가 및 정책 방향

2007년 제5회 한·중경제포럼

1. 주제 : 최근 중국경제 현황 및 정책 방향
2. 일시 : 2007. 7. 19(목) 16:00~20:00
3. 발표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마샤오허(马晓河) 부원장

1. 최근 중국경제 성장의 특징

가. 고성장세 지속

□ 최근 중국경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10%를 웃도는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0.5% 포인트 높은 11.5%의 성장률을 시현함.

- 2007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1.1%, 11.9%를 기록

□ 산업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차 및 3차 산업에 비해 2차 산업 특히, 공업에 견인되고 있음.

<표 1> 산업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비교(2001년~2006년)

(단위: %)

	GDP	1차 산업	2차 산업	그 중 공업	3차 산업
2001	100	5.0	46.7	42.1	48.3
2002	100	4.5	49.8	44.4	45.7
2003	100	3.3	58.5	51.9	38.2
2004	100	7.7	52.2	47.7	40.1
2005	100	6.3	54.7	47.9	39.0
2006	100	5.9	55.5	49.2	38.6

- 또한 수요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2001년 61.4%에서 2006년 50.0%로 감소한 반면, 투자와 수출의 기여도는 상승함.

<표 2> 수요별 경제성장 기여도 비교(2001년~2006년)

(단위: %)

	GDP	소비	그 중 주민소비	총 자본형성	순수출
2001	100	61.4	45.2	36.5	2.1
2002	100	59.5	43.7	37.9	2.6
2003	100	56.8	41.7	41.0	2.2
2004	100	54.3	39.8	43.2	2.5
2005	100	51.9	37.7	42.6	5.5
2006	100	50.0	36.4	42.7	7.3

나. 통화량 증가, 투자 확대

- 통화량 증가율이 높고 대출 증가 속도가 빠름.

- 2007년 6월말 기준 M2와 M1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17.1%, 20.9%에 달함.

- 대출 증가율은 2007년 2월부터 16.5%를 웃돌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 대출 잔액은 25조 위안에 달해 연초 목표치를 초과

- 2007년 상반기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25.9% 증가하였으며 도시지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26.7% 증가

다. 공업생산 가속화

- 2007년 상반기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8.5% 증가함. 특히 6월 한 달간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9.4%에 달해 최근 41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
 - 업종별로 볼 때 철강, 비철금속, 화학공업, 전력, 석유가공 및 코크스 등의 강세가 뚜렷함.
- 현재 중국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6%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수준을 초과하면 과열이라 볼 수 있음.

라. 소비 증가

- 2007년 상반기 사회소비재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1% 포인트 증가한 15.4%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15.9%, 현 및 현금 이하 지역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14.3%를 기록
- 향후 도농주민의 소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상반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7,052위안(전년 동기대비 실질증가율은 14.2%)이며, 농촌주민의 1인당 현금소득은 2,111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4위안(실질증가율 13.3%) 늘어남.
 - 2003년부터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인한 소비원가 감소, 저소득자 보호 범위 확대, 양로 및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사회보장수준 제고 등의 요인으로 소득이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지원정책으로 농촌의 소득수준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소비시장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마. 소비자물가 상승

□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최근 7개월 연속 2%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5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육류를 비롯한 식품가격의 상승세(7.6%)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9% 포인트 오른 3.2%를 기록. 특히 6월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4.4%에 달함.

- 이밖에 생활필수품, 주택, 기타 서비스가격의 체감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바. 대외무역수지 흑자 급증

□ 2007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전년 동기대비 23.3% 증가한 9,809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27.6% 늘어난 5,467억 달러, 수입은 18.2% 늘어난 4,342억 달러로 대외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511억 달러나 증가한 1,125억 달러를 기록

2. 중국경제 성장의 문제점

□ 2007년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고도성장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가. 유동성 과잉

□ 외환보유고의 급증과 국내저축의 확대로 유동성 과잉 압력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

- 2007년 6월말 기준 중국은 1조 3,326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예금 총액은 약 36조 위안, 대출 총액은 25조 위안으로 예금과 대출 차이는 12조 위안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대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자산 및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이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음.

나. 생산능력 과잉

- 유동 자금의 과잉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생산증가 속도가 소비증가 속도를 초과하게 되어 전면적인 생산능력 과잉 상태에 들어섬.
- 특히 전해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야금, 일부 화학공업, 가전제품은 물론 방직업에까지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 상당수의 업종에 나타나고 있는 과잉현상은 정부의 지원 하에 형성된 것이라는 특징을 보임.
- 이러한 생산능력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하며, 도시의 중저소득 계층과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이들의 소비수요를 크게 자극하는 전략적인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소득 격차 심화

- 도농간 소득 격차는 물론 도시와 농촌내부의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정부 정책의 노력으로 농촌주민의 소득이 2004년 6.8%, 2005년 6.2%, 2006년 7.4%로 증가하였으나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짐.
- 아래 <표 3>에서 보면 1990년 도농 소득 비율은 2.2였으나 2006년에는 3.28로 늘어남.

<표 3> 도농 주민소득 비교

년도	농민 소득(위안)	도시 주민 소득(위안)	도농 소득 비율
1985	397.6	739.1	1.86
1990	686.3	1,510.2	2.2
1995	1,577.7	4,283.0	2.71
2000	2,253.4	6,280.0	2.79
2004	2,936.4	9,421.6	3.21
2005	3,255.0	10,493	3.22
2006	3,587	11,759	3.28

- 사회과학원의 관련 연구에 의하면 공공의료, 양로, 교육보조, 주택공적금 등 사회복지 항목을 포함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짐.

□ 2000년~2006년 도시(城鎮)지역 하위 20%의 저소득 인구 1인당 소득은 3,121위안에서 4,567.1위안으로 증가(연간 명목 증가율 6.5%)하였으나, 상위 20%의 고소득 계층의 1인당 소득은 동기간 11,299위안에서 25,410.8위안으로 증가(연간 명목 증가율 14.5%)함으로써 그 격차는 3.61배에서 5.56배로 확대됨.

□ 2000년~2006년 농촌지역 하위 20%의 저소득 계층 1인당 소득은 802위안에서 1,182위안으로 증가(연간 명목 증가율 6.7%)하였으나, 상위 20%의 고소득 계층의 1인당 소득은 5,190위안에서 8,475위안으로 증가(연간 명목 성장율은 8.5%)함으로써 그 격차는 6.5배에서 7.2배로 늘어남.

□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6년 국가 빈곤선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 빈곤 인구가 5,698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 절대 빈곤인구가 2,148만 명, 저소득 인구 3,550만 명이고, 최저 생활보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도시(城鎮)주민도 2,000여 만 명에 이르고 있음.

- World Bank의 빈곤선(1인 1일 1달러 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은 약 1억 3,500만 명이 여전히 국제 빈곤선 수준 이하에 처함.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빈곤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보여줌.

라. 환경 및 자원문제

□ 환경보호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고 에너지 공급부족, 광물자원 및 수자원 결핍 현상이 나타남.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는 1.2% 감소하였으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속도도 완화되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각각 전년대비 1.2%와 1.8% 증가함으로써 정부 목표치인 '4% 감소', '2% 감소'를 달성하지 못함.

- 현재 중국은 보크사이트, 산화알루미늄, 철광석, 동광석, 망간광 등의 광석자원이 결핍하여 매년 이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나 석유(8.19%), 원탄(34.4%), 철강(27.7%), 철광석(34.8%), 산화알루미늄(20.4%), 시멘트(44.6%) 등의 자원 소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큼.

□ 중국은 수자원 부족 국가의 하나로 매년 수자원 결핍으로 인한 농업 손실은 500억 위안에 달하고 공업 생산액 손실은 2,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전국 660개 도시 중 60%가 수자원이 부족하고, 2006년 전국 수자원 총량은 2조 5,500억 입방미터로서 전년 대비 9.1%감소, 1인당 수자원은 1,945입방미터로서 9.6% 감소됨.

- 중국의 수자원 공급이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향후 수자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개발 가능한 토지의 공급이 감소됨으로써 공업화, 도시화의 추진, 곡물 생산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

- 1998년 이후 중국의 경작지 면적의 순감소는 1억 묘(畝)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경작지 면적은 1953년 2.82묘에서 1.4묘로 감소됨.

마. 장기 경제성장 전망

-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국경제는 장기 성장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소득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의 확대, 도시화 가속화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등이 잠재적인 중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경제성장의 요인
- 현재 경제성장의 가속화 단계에 접어든 중국은 1인당 GDP가 아직 2,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기 성장의 여지가 있으며, 제도개혁 및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경제의 장기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3. 경제관련 정책 방향

-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민간 소비를 자극하는 한편 지나친 투자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생산능력 과잉 조정, 기준률 및 금리인상, 토지사용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가. 생산능력 과잉 조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6년 3월 《생산능력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시멘트, 코크스, 합금주철, 알루미늄, 석탄, 방직 등에 대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
- 이어 6월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조정을 강화하고 신규프로젝트의 엄격한 통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8월 초 철강, 석탄, 자동차, 시멘트, 전력, 방직 등에 대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

나. 기준률 및 금리인상

- 중국 인민은행은 2006년 7월 5일부터 2007년 6월 5일까지 8차례에 걸쳐 기준률을 11.5%까지 인상하였으며, 2007년 3월 18일과 5월 19일 연달아 예금과 대출 금리를 인상시킴.

<표> 1998년 이후 기준률 변화 추이

조정 시기	조정 수준	기준률 변화
1998.3.21	5% 포인트 하향	13% → 8%
1999.11.21	2% 포인트 하향	8% → 6%
2003.9.21	1% 포인트 상향	6% → 7%
2004.4.25	0.5% 포인트 상향	7% → 7.5%
2006.7.5	0.5% 포인트 상향	7.5% → 8%
2006.8.15	0.5% 포인트 상향	8% → 8.5%
2006.11.15	0.5% 포인트 상향	8.5% → 9%
2007.1.15	0.5% 포인트 상향	9% → 9.5%
2007.2.25	0.5% 포인트 상향	9.5% → 10%
2007.4.16	0.5% 포인트 상향	10% → 10.5%
2007.5.15	0.5% 포인트 상향	10.5% → 11%
2007.6.5	0.5% 포인트 상향	11% → 11.5%

다. 부동산시장 조정

-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조정하기 위해 “국6條”를 발표(2006.5.17), 9部委에서 15조의 조치를 발표(2006.5.29)함. 이외에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조정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별장용 토지사용 금지 통지(국토자원부, 2006.5.31)
- 주택구입 이후 5년 미만의 매매거래에 대한 영업세 전액 징수(국가세무총국, 2006.5.31)
- 토지공급 건축에 관한 조정조치(국토자원부, 국무원, 2006.5~9월)

라. 확대 재정정책

- 중국정부는 교육, 위생, 사회보장, 기타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급을 늘려 내수를 견인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조세 징수를 강화하고, 재정세무제도 개혁,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정책 통일, 수출환급세 정책의 단계적 취소 등의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함.

마. 산업 관련 정책

□ 중국정부는 생산능력 과잉산업과 에너지 고소모, 오염물질 배출 산업에 대한 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업별 구조조정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2007년 중에는 소규모의 발전설비 확충을 억제하고, 낙후된 제철설비를 폐지하는 한편,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석탄, 방직, 제지 등의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선진적인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철강, 건축자재, 석탄, 전력, 석유화학, 건축 등 산업의 기술혁신 강화
- 생물 의약, 집적회로,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정보안전 등 첨단기술 공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자정보, 항공 우주비행 등 첨단기술 기지를 새로 구축하여 신흥 산업을 육성
- 농업,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낙후 지역 개발 등을 지원
-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
- 대체 에너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 서부대개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인프라 시설, 생태환경 건설, 과학기술 교육 발전을 강화
- 동북 노공업기지 진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 기업의 개편과 연구개발을 지원

- 중부 부흥 정책을 실시하고 식량기지, 에너지 원자재 기지, 선진제조업, 첨단기술 산업 기지와 교통물류 체계 건설을 강화

<질의·응답>

질문 1: 최근 3-4년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조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정부 내부에 10%정도의 경제성장률 수준이 과열이 아니라 중국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가?

답변 1:

대부분의 중앙정부 관료들이나 거시경제학자는 과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정부나 산업계에서는 과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중앙정부는 기준률 인상, 예금 및 대출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성장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아 계획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질문 2: 중국경제의 과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집행의 괴리에서 야기되는 측면도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평가한다면?

답변 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그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임. 중앙정부의 거시 조정정책에 대해 중국의 대다수 지방정부들은 이를 집행할 여력이 아직 부족함. 토지 관련 정책을 예로 들면, 중앙정부의 토지사용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자의적인 토지사용과 매매거래를 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행정적 조치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경제관계를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볼 때 시장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음. 따라서 중앙정부는 행정 조치와 시장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여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질문2: 2007년 위안화 환율을 예측한다면?

답변 2:

최근 위안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기관은 2007년 말 1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3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질문 3: 중국은 최근 기준률 및 금리인상, 행정수단을 통한 투자 억제 등의 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조정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답변 3:

현재 기준률은 11.5%, 대출금리는 6.7%(1년 만기 기준)이지만 각각의 사상 최고치는 13%, 11%이상인 적도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기준률과 금리인상의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됨. 아직까지 중국경제의 적정 성장률수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인 판단은 1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1985년에 15% 이상 성장하고 1992년에 14% 이상 성장하였으나 당시에는 환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 그러나 현재는 과학적 발전관을 제창하고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함. 따라서 일부 지방정부들이 이를 외면한 채 고성장만을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음.

지나친 경제의 고성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높음. 중국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질문 4: 생산능력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금리인상, 인민폐 절상 등의 조치로 대규모 부실자산이 야기될 경우 소위 '중국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가?

답변 4: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의 요인이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공급측면에서의 위협요인은 그리 크지 않은바, 만일 중국 제품의 생산량이 감소된다면 이는 공급측면의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오히려 수요의 급작스런 감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봄. 특히 세계 수요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변화가 세계경제 향방의 주요 변수라고 생각됨.

질문 5: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가?

답변 5: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취임 이후 농촌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1) 약 1,200억 위안에 상당하는 농업세, 임업세, 목축세, 도축세를 모두 면제, 2) 식량종자 보조, 농기구 보조, 농업종합생산재 보조, 매 묘당 15위안 직접보조 등의 지원책 실시(470여 억 위안 규모), 3) 농촌의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학비, 잡비, 교재비 등의 면제, 생활 숙식비 지원), 4) 농촌지역의 최저생활보조 실시(빈곤 가계 지원), 5) 농촌지역의 신형의료협작제도 실시(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인당 20위안 지원, 농민 개인이 10위안을 부담하여 의료기금을 형성), 6) 주요 식량생산 기지에 대한 지원 강화, 식량 최저구입 가격제도 실시, 7)농촌에 대한 공공시설 투자 확대, 8) 농민공 호적 제도 개선 노력